

섬진강댐 수몰마을 환경개선

임실군, 학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선정·3억 2000만원 투입

임실군이 섬진강댐 건설로 수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운암면 소재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군은 2018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학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2000만원(도비 1억6000만원 군비 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운암면에 있는 학암마을은 옥정호 상류 지역에 위치해 섬진강댐 건설로 농경지 대부분이 수몰되어 지난 50여년 넘게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게다가 지난 199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행위 미저 제약을 받아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컸던 대표적 마을이다.

그러나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학암마을의 종합적인 마을개선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득기반시설 확충

을 위한 공동작업장 신축과 배수로와 담장, 우물 정비 등 공용시설 보수·정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사업은 주민공동체와 협력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설계를 거쳐 2019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다.

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학암마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 생활에 가장 불편하고 취약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세부사업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하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개발 특구 조성사업에 한창이다.

섬진강 예코뮤지엄 조성사업(280억

원)과 옥정호 물문화 돌레길 조성사업(50억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섬진강 예코뮤지엄 조성사업 중 봉어섬 예코가든 조성사업과 관광경관도로 'X' 조성사업은 연초 계약을 체결해 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옥정호 물문화 돌레길 조성사업도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학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운암면 일대 마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옥정호 인근 마을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옥정호 종합관광개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옥정호와 운암면을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무르면서 즐기는 체류형, 친환경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 박차

하드웨어사업 30억원 투입

남원시는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조기 완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지난 6일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이 사업은 '사람 찾는 농촌, 가고 싶은 농촌, 머무르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운봉 전촌(동편제)마을을 거점으로 지리산권역(비전, 화진)마을과 연계해 체류지도사, 실무자자격증, 서비스 교육, 소프트웨어사업과 체험객 숙박시설, 커뮤니티 존, 북카페 등 하드웨어사업에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전북도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조기 완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지난 6일 마을회관에서 가졌다.

한편 동편제 위원장은 "조기 완공을 위해 힘쓰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체험관광 기반과 숙박시설 구축을 통한 농촌의 차별화 된 이미지 창출로 사람 찾는 농촌 만들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이 조성되면 숙박 기능인원 최대 80여명과 함께 체험 시설 이용 등 마을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승마인구 저변확대·지역홍보

순창군 유소년 승마단이 본격 창단해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순창 지역홍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순창군 승마장에서 유소년 승마단을 본격 창단했다. 이번 창단된 순창군 유소년 승마단은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3명 모집에 54여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유소년 승마단은 매주 2회씩 승마이론부터 실습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강습을 받게 되며, 유소년 승마단 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은 물론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지역의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각종 활동을 통해 지역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황숙주 군수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지역에 승마를 일으키고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순창군 승마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0월 강천산 군립공원 길목인 팔덕면 구룡리 672번지 일원 총 1만9,735㎡ 규모에 실내외 마당 마사와 사무실을 갖춘 승마장을 개장했으며, 강천산과 민속마을을 잇는 관광코스에 활용될 계획이다. 현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황숙주 군수는 "유소년 승마단 창단이 지역에 승마를 일으키고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순창군 승마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지역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0월 강천산 군립공원 길목인 팔덕면 구룡리 672번지 일원 총 1만9,735㎡ 규모에 실내외 마당 마사와 사무실을 갖춘 승마장을 개장했으며, 강천산과 민속마을을 잇는 관광코스에 활용될 계획이다. 현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승마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 아리

남원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남원시는 올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4개사업에 7억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2,152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총 4억2,0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관내 저소득층 186세대와 복지시설 481개소 총 667개소를 대상으로 낮은 전기요금기구를 전기요금소량이 적은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세대당 년간 67천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찾아가는 건강검진 '호평'

순창군이 9일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9일 유동면 검진에도 주민 60여명 건강검진을 받았다.

10일에는 팔덕보건지소에서 팔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출장 주민건강검진이 진행됐다.

이사업은 주민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내원 건강검진이 어려운 읍면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급파를 시작으로 동계, 생치, 팔덕, 인계면 등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진행해 지금까지 470여명에 대한 출장검진을 마친 상태다.

검진 대상여부와 검진 항목 등 관련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계 전화(063-650-5313)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남원시가 352억원을 들여 농로, 용·배수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전체예산의 73%에 이르는 257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재해위험저수지 5개 지구 정비, 농로 확포장(76km), 용·배수로 현대화(104km), 경지정리 1개 지구를 일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높이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농로 확포장 및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예산은 21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0억원(62%)이 증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남원=유영철 기자

"귀농 통한 농촌안정화·지속성 유지"

박용섭 남원시장 예비후보, 대표 공약 30개 발표

박용섭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연구 귀농을 통한 농촌안정화 및 지속성 유지, 국립유전자시험장 부지 48만평 수목원 조성 등 대표 공약 30개를 발표했다.

'소통하는 시장, 섬김의 시장'을 약속하며 남원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박 후보자는 이번선거에서 '남원 인구 10만 명 회복을 목표로 내재된 지역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남원의 아젠다를

제대로 세우 시민들에게 선택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남원시장의 경제, 교육, 복지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매년 인구가 이탈하고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전반적인 공약의 기준을 시민의 삶의 질과 인구 10만 회복에 두었으며 관광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농업발전을 중점적으로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장 선거와 관련, 박용섭, 김영권 무소속 예비후보는 시민연대를 위한 단일화에 협의하고 오는 14일 순향골실내체육관에서 경선을 치른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